

# 관람객 90만명...영암 월출산 국화축제 '대박났다'

### 16일간 '국화...설렘으로 다가온다' 주제 54종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 국화작품 27종 · 24만 여 전시 · 연출...대한민국 대표 축제 위상 높혀

영암군은 기찬랜드 일원에서 펼쳐진 '2019 월출산 국화축제'에 90만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역대 가장 성공적인 축제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16일간 열린 올해 국화축제는 '국화...설렘으로 다가온다'라는 주제로 국화축제 개장 축하쇼와 공연·체험·참여·특별행사 등 54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국화분화 24만여점을 2만평의 기찬랜드 전역에 배치하고 왕인문과 기찬이·기순이, 민속씨름, 황소, 우마차, 큰바위열굴 등 국화조형물을 곳곳에 전시하여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내며 인증샷으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온종일 복세동을 이루었다.

또한, 축제기간 동안 1,000여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에 매일 300여명의 교통안내 요원과 자원봉사자가 친절하게 관람객을 안내하여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특히, 지역축제로 전남·광주지역의 관람객이 대부분이었으나, 가성비가 최고라는 입소문이 퍼져, 수도권과 충청·경상도 등 전국에서 찾아와 연일 대형 버스로 가득 채워지는 등 축제장 곳곳이 구름인파로 북적거리며 남도 대표 국화축제를 뛰어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 ■ 1억송이 국화...화려한 변신, 관람객 눈길 사로잡아

올해 국화축제는 국화작품 27종, 24만여점을 전시·연출의 다변화를 시도하여 관람객의 눈을 한층 더 즐겁게 했다.

2만여평의 기찬랜드 주관람로 주변에 연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시공간을 배치하고 국립공원 월출산의 가을단풍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국화를 소재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연출했다.

특히, 국화전시를 5개 테마로 정하고 스텝랜드존(야외 공연장)



중심으로 품속의 가을정원) △플라워랜드존(분재전시·아치터널·각종조형물 배치로 향기로운 국화) △즐거움 한가위존(추석의 보름달과 소원을 비는 탑의 배치로 풍요로운 가을 이미지) △원더랜드존(색채감 넘치는 공간과 캐릭터 국화조형물 배치로 어린 아이들의 상상의 공간) △특별테마존(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지도, 민속씨름 조형물)을 설치했다.

또한, 기찬랜드 입구에는 가을 꽃 산책로를 2,530㎡ 조성, 백일홍과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포토존을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화 조형물과 모형작, 분재국, 화단국 등 25종, 4만여점을 자체 생산하여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했으며, 국화 재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관내 21농가를 선정하여 화단국과 입국 등 20만여점을 위탁 생산하여 250백만원의 농가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 ■ 화사한 국화향연, 관람객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승화

축제장의 메인 소재인 '국화'와 어울리는 참여·체험행사를 대폭 강화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의 이목도 집중시키며 만족도는 최고로 나타났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국화 꽃마차 페어리드'는 캐릭터·코스어 행렬, 라인댄스팀, 포토타임, 국화꽃 나눠주기 등으로 수백명이 함께하는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월출산 국화축제 개장 축하쇼를 시작으로 10월의 마지막 밤을 장식한 △낭주골 음악회 △월출산 가을콘서트 △전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기찬강감 오색향연 가을음악회 △전국 외국인 가요제는 축제를 찾아온 관람객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국향버스킹 △보이노라디오 국화방송국&라이브 노래방 △영암군민을 위한 힐링 콘서트 △영암 프린지 마당 공연은 지역문화 예술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만든 기획 프로그램으로 군민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특히, 기찬경로당 건강백세 한마당 행사는 51개 경로당 어르신 700여 명이 그동안 익힌 기량을 한껏 뽐내는 자리로 흥겨운 음악에 맞춰 신바람 나고 열정 넘치는 실력을 선보이며, 관람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 ■ 설렘으로 다가온 국화...감성적인 프로그램 운영 '대성공'

'국화...설렘으로 다가온다'는 주제로 감성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1억송이 국화향연과 함께 관람객에게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관람객과 함께 즐기는 전통차 시연과 시음행사로 국향이 그윽한 아

름다운 차자리'는 접빈 다례와 생활차 시연, 바이올린&통기타 공연 등으로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사랑품은 국화프러포즈'는 신창자의 시연 소개와 신청곡, 연인에게 프러포즈를 진행하면서 커플링과 국화화관, 국화꽃다발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만들어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국립공원 월출산의 오색단풍과 국화향연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월출산 국화축제 단풍트레킹'을 운영하여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용추폭포 단풍 나눔이'를 통해 산책로를 걸으며 국화와 단풍을 함께 즐기는 관광프로그램으로 예약이 넘쳐났다.

△국화차 시음회를 통해 국화향을 느끼고 △국화터널 소원지 쓰기는 방문객의 소망을 적어 묶어 주기 △가을편지, 느린 우체통은 우체국과 연계하여 축제장에서 작성한 엽서를 1년 후에 발송해 주는 타임머신 우체통으로 인기가 만점이다.

#### ■ 대기번호 기다리고, 음식·체험부스 매진사례 속출 온종일 북적북적

축제장 일원 상인들은 축제기간 내내 끊임없이 이어지는 손님들을 맞이느라 즐거운 비명을 질렀으며, 관람객이 물리는 주말에는 재료가 소진되는 등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을 정도였다.

달마지쌀 떡메치기는 관람객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개장당일 오전 11시 재료가 소진되어 더 이상 체험·판매할 수 없다는 안내간판이 붙었으며, 다음날 2배 이상의 재료 준비에도 오후 2시에 소진되는 일도 발생되었다.

감성미션 스탬프 투어는 2천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개장 3시간 만에 매진되고 국화동산 의상체험도 관람객의 호응이 좋아 하루 300여명 이상이 체험을 하고 있어 대기를 기다리는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 운영자들이 쉴 시간이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거리에 화가들이 그려주는 가족 캐리커처 드로잉과 키다리빠에로 국화풍선 퍼티, 풍금이 있는 추억의 고실, 기찬 문방구, 활기 충전 건식 족욕 체험, 우드버닝 체험, 전통주 시음회 등도 관람객이 대거 몰리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짜임새 있는 홍보·판매행사로 월출산 국립공원 홍보관, 관광사진 전시회, 월출산 자락 국화꽃집과 영암국화연구회 분재전시 및 판매, 기찬영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영암청년 플라마켓, 맛있는 푸드 트럭 운영으로 영암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소득창출의 기회도 얻었다.

#### ■ 관람객의 편의·안전을 최우선, 깨끗한 환경, 가성비 최고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의 편의시설 개선과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깨끗한 환경 정비까지 그동안 방만한 관람객이 가성비를 최고로 평가하고 입소문이 퍼져 매일 구름인파가 몰려들었다.

관광전문 해설사가 운영하는 관광안내소와 의료·수유실·유모차·휠체어·미아방지밴드 등 편의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매일 30여명의 근무자를 배치 운영했다.

축제장 내 먹거리 위생점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업체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깨끗한 축제장 환경정비를 위해 공공근로와 자원봉사자가 수시로 쓰레기 수거와 화장실을 청소하는 등 축제장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관람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전국 최고의 주차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찬랜드는 1,000여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안내 전문인력과 군부대,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뤄냈다.

올해 축제는 자원봉사자가 900여명이 대거 참여하여 재능기부와 의상체험, 전통차 시음회, 교통지원, 쓰레기 수거 등 활동을 펼쳐 영암군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났다.

특히, 이번 축제를 위해 행사장 안내요원과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환경미화원 등 그동안 축제기간 동안 3,200여명의 운영요원이 참여하여 단 한건의 사건사고없이 축제를 마무리 했다.

전동명 군수는 "올해 국화축제는 명품·경제·안전축제를 모토로 그동안 착실하게 준비한 결과, 90만명 관람객이 찾아와 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화축제로 위상을 한껏 드높였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알차고 다양한 볼거리와 특색있는 국화작품 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